

포교와 전법의 사명

제45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군포교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용맹 정진하고 있는 군승법사님들께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포교와 전법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제3대 군종특별교구 본사주지로 취임하신 정우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숙과 변화의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는 군불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전후방 각지에서 군승법사님들에 의해 세워지는 포교와 전법의 원력은 ‘하나의 등불이 모여져 온 세상을 밝힌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결코 하나의 작은 등불로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군승법사님들은 앞으로도 수행과 정진, 포교와 전법이 둘이 아님을 잘 살피어 더욱 힘찬 정진과 노력으로 군불교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5년이라는 군불교의 역사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왔고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냈던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군불교가 지금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동과 성장을 지나 이제 중년의 성숙함에 들어서는 군불교는 지나온 45년간의 시간들에 안주하기보다는 자랑스러운 군불교 역사를 밑거름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군불교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군포교의 역사, 너무도 막중한 군불교의 사명, 60만 국군장병들과 함께 하는 힘찬 포교와 전법의 용맹 정진을 앞으로도 기대해 봅니다. 그간의 수행력을 내놓으시며 어느때보다 바쁜 일과로 헌신하시는 정우스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깊은 뜻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군불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7년 11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